

老人의 疏外感에 影響을 미치는 關聯變因 研究

- 서울시 居住 老人들을 對象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Alienation of the Aged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朴 義 連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Eui Yeon Park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 劉 永 珠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Prof. : Young Ju Yoo

目 次

- | | |
|-----------------------|--------------------|
| I. 序 論 | 5. 老化知覺程度와 老人의 疏外感 |
| 1. 問題의 提起 | |
| 2. 研究目的 및 研究問題 | III. 研究方法 및 節次 |
| II. 理論的 背景 | 1. 研究對象 |
| 1. 老人의 疏外感에 대한 概念 | 2. 測定道具 |
| 2. 社會人口學的 變因과 老人의 疏外感 | 3. 資料 蒐集 |
| 3. 社會活動 參與度와 老人의 疏外感 | 4. 資料分析 |
| 4. 家族關係 滿足度와 老人의 疏外感 | IV. 研究結果 및 論議 |
| | 1.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
| | 2. 研究問題의 分析 |
| | V. 結論 및 要約 |
| | 參考文獻 |

= ABSTRACT =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alienation of the aged, and to study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se factors.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

- 1) How do the demographic variables (sex, marital status, family structure, religion, economics, prior occupation, education level) affect the alienation of the aged?
- 2) How the alienation of the aged is affected by their involvement in social activities?
- 3) Does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have a perceivable impact on the

alienation of the aged ?

4) How does the self-rated senescence affect the alienation of the aged ?

The research was practiced from the 18th Sept. 1988 to the 30th Sept. 1988,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300 elderly people, all living in Seoul area. Among them only 285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 1) The sex of the respondents makes no difference in the alienation of the aged.
- 2) Marital status is found to be relatively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alienation. The degree of alienation of old people with spouse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at of those without spouse.
- 3) Family structure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ly effect on the alienation of the aged.
- 4) Involvement in religion was found to significantly reduce the alienation of the aged.
- 5) Economic factors seems to be critical in determining the aged. The amount of pocket money available for daily use has direct relationship with alienation.
- 6) Prior occupation was found to be another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alienation professionals experience far lower alienation than nonprofessionals.
- 7) The higher is education level, the lower is the alienation of the aged.
- 8)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good relationship with other family members were founded to contribute to lowering the alienation of the aged. Whereas, too much concern over one's senescence appears to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alien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satisfaction with the family relationship has the most important influence upon the alienation of the aged. Following are the factors of self-rated senescence, pocket money in a descending order. All these factors, which explain 42.65% of the total variance of alienation variabl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p < .001$).

序 論

1. 問題의 提起

의학 및 보건위생의 발달, 인간을 위한 환경의 개선, 소득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구의 형태가 多産多死형에서 小産小死형으로 轉移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人口의 老齡化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황진수 1986). 1985년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76만명으로 전체 人口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지난 1960년의 136만명에(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7)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91년에는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老齡人口가 35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한국개발연구원 1977) 앞으로 人口의 老齡化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老人人口의 양적비대와는 달리, 오늘날 産業化, 都市化로 표현되는 現代化 과정속에서 老人들은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적응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 건전한 社會構成員으로서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으며(송현애 1986) 産業化된 社會에 있어서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의 배분은 연령과 성별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능력과 업적위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서(김중숙 1987) 現代社會에서 老人은 젊은층에 예속된 낮은 地位로 하락하게 되었다.

또한 核家族 夫婦中心의 家族으로 표현되는 가족변동의 과정속에서 老人의 地位는 날로 低下되어 가고 있으며 게다가 서구의 물질문명의 도입으로 인한 전

통적 동양윤리와의 갈등속에서 世帶間的 價値觀 차이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김성순 1981).

이러한 배경하에서 老人問題는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체적 老化에서 비롯되는 노인질병의 문제로부터 은퇴에 따른 老人의 빈곤문제, 역할 상실문제, 여가활동문제, 家族의 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노인부양문제, 세대간의 갈등문제 그리고 老人自身이 지각하는 孤獨과 疏外의 문제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産業化과정에 따른 現代社會에서 무엇보다 문제시되는 것은 人間의 疏外, 孤獨등 심리적 측면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老人問題의 연구 및 해결에 있어서도 老人의 심리적 측면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같은 老人의 심리적인 問題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老人의 疏外 問題를 좀더 심층적으로 研究하고 그것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들을 파악하여 많은 老人들이 느끼고 있는 疏外感을 해소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老年學 研究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課題라고 할 수 있다.

2. 研究目的 및 研究問題

앞에서의 問題提起에 따라 本 研究의 目的은 老人의 疏外感에 影響을 미치는 相關요인들을 살펴보고, 또한 각 要因들이 老人의 疏外感에 미치는 상대적 影響력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이러한 研究目的을 위해 本 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研究問題를 설정하였다.

研究問題 1:

社會·人口學的 變因(성별,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용돈액, 은퇴전 직업, 교육정도)에 따라 老人의 疏外感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研究問題 2:

社會活動 參與度에 따라 老人의 疏外感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研究問題 3:

家族關係 滿足度에 따라 老人의 疏外感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研究問題 4:

老人知覺程度에 따라 老人의 疏外感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II. 理論的 背景

1. 老人의 疏外感에 대한 概念

1) 老人에 대한 概念

“老人”이라는 용어는 극히 평범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 概念은 규정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老人의 概念은 특정한 社會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定義될 수 있으며 學者에 따라 老人의 理論的 定義도 다양하다(김태현 1981).

Leonard(1960)는 老人이란 ① 심리적·육체적으로 변화기에 있는 사람, ② 심리적인 면에서 퍼스낼리티의 기능이 감퇴되어 가고 있는 사람, ③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과거에 속해있는 사람이라고 定義하였다. 한편, 국제노년학회(1951)에서는 老人이란 ①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신체조직에 결손이 있는 사람, ② 자신을 종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③ 인체의 기관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④ 생활에 있어서의 적응성이 적극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⑤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감퇴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定義하고 있다(김태현 1981, 재인용).

그러나 한 個人이 老人인가에 관한 문제는 社會가 그를 老年期에 접어든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갤럽조사(1984)에 의하면 우리나라 老人들 스스로가 老後生活이 시작되는 時期를 60세로 보고 있을뿐 아니라, 또한 퇴직연령도 대체로 55~60세이며(한국경영자협회 1979),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경제통계에서도 비생산활동인구를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本 研究에서는 60세 이상을 老人이라고 규정하기로 한다.

2) 疏外感의 概念

疏外(Alienation)란 一般的으로 결핍, 상실, 부정, 불안등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概念으로(유중열, 1983) 많은 학자들간에 그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오늘날 서구에서 疏外라고 표현되는 Alienation, Alienatio, Entfremdung 등의 語原은 Anomie 또는 Alienatio에서 나온 말로써 分離, 離間, 疎隔의 뜻을 가지고 있다(정문길 1981). 이러한 語原에서 비롯된 疏外用語는 시대를 거치며 그 概念上的 변화를 겪게 된다. 최초로 疏外概念은 人間이 원죄에 의해 神으로 부터 분리되었다는 신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오세철 1983), 이것이 現代의 사회심리학적 개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Hegel, Feuerbach, 그리고 Marx로 부터라고 볼 수 있다(전병제 1986).

Horton은 疏外の 概念속에 anomie보다 더욱 포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疏外란 個人의 불안정한 결합, 무력감, 무규범성, 사회적 격리의 복합 개념 또는 사회로 부터의 완전한 감정적 분열상태라고 설명하였다(장진호 1980).

이러한 疏外の 概念은 현대 사상가들에 의해서도 여러가지로 定義되고 있으나, Melvin Seeman(1959)은 이 개념을 정리하여 疏外の 개념이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① 무력감(Powerlessness) : 무력감이란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 個人的·社會的 보상이 생기도록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말한다. 즉 疏外된 사람에게에는 이같은 통제가 외부적인 힘, 강력한 他者, 행운 또는 운명에 맡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② 무의미함(Meaninglessness) : 무의미함이란 자기 행동의 장래성과에 대해 만족할만한 예측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뜻한다. 즉 자기의 行動結果에 대해서 자신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심리상태로 個人 자신의 行動에 자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무규범성(Normlessness) : 무규범성이란 社會的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行動들이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높은 기대감을 말한다. 즉 어떤 행위규범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目的과 적절히 연결되지 못하여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되고 그 구속력도 상실되어 버린 個人의 심리상태를 말한다.

④ 사회적 고립감(Social Isolation) : 社會的 孤立感이란 거부 및 거절의 감정으로 포용이나 사회적 수용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뜻하며, 이러한 心理狀態는 주로 소수파 구성원, 노인층, 병약자 및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된다고 보았다. Seeman은 이러한 社會的 孤立的 의미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결국 社會와의 단절관계를 조성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⑤ 자기 유리감(Self-Estrangement) : 자기 유리감이란 人間이 자기자신을 낯선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他人지향형 인간행이 나타 내기 쉬운 소외양상을 포함한다.

以上을 종합하여 볼때 疏外感의 概念은 人間이 무력감, 무의미함, 무규범성, 사회적 고립감, 자기 유리감을 경험하므로써 어떤 사물 또는 他人과 소원해지는 行動이나 行動의 結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本 研究에서는 Melvin Seeman이 밝힌 다섯가지 소외유형을 中心으로 老人의 소외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3) 老人의 疏外感

老人이 된다는 것은 피할수 없는 과정으로 他人과의 상호작용 속도 및 양이 감소하고 보고 듣는 지각범위 및 다양성이 축소되며 사회적으로나 자신 스스로 참여의 폭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것이 老年期의 일반적 특성이다(Cumming, Dean, & Newell 1960). 老年期에는 또한 동기의 저하, 도전을 요하는 일에 대한 기 피현상 및 안일과 현상유지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유영주 1980), 따라서 社會의 老人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게 된다. 더구나 産業化에 따른 인구증가 및 도시화·핵가족화 그리고 근대적 가치로의 변화가 現代社會에서의 老人의 위치를 크게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Cowgill 1974), 現代社會의 老人들은 더욱 심각한 疏外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행자 1974; 박미령 1978).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老人들의 53.3%가 고독과 소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疏外感을 느낀다는 비율이 연령이 많아 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사한 결과 보고가 박재간, 임춘식(1983)의 조사에서도 평상시 고독이나 소외감을 자주 느낀다고 보고한 노인(42.1%)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11.2%)에

비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老人의 疏外感과 관련된 문헌과 研究들을 中心으로 하여 그 관련변인별로 老人의 疏外感을 살피보고자 한다.

2. 社會人口學的 變因과 老人의 疏外感

1) 性

老年期の 생활양상을 性에 따라 살펴보면, 남녀의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한 여성노인의 사별비율이 높고 이혼의 비율에 있어서도 여성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허 정 1979), 배우자 상실이 성별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女性老人이 男性老人에 비해 더욱 孤獨이나 疏外感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先行研究의 결과들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Wythers(1974)의 연구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孤獨感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우리나라의 研究에서도 김행자(1974), 정문숙(1979), 박금화(1983)의 연구결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疏外感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미령(1978), 맹희재(1985), 김미옥(1986)의 연구에서는 老人의 性別에 따른 孤獨感 및 疏外感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配偶者 有無

배우자란 結婚이라는 의식으로 맺어진 비혈연적 상대이기는 하나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상호보완적 상대로서 특히 現代社會에 있어서 배우자란 性的대상자, 심리치료 대상자, 인격보완의 대상자가 된다(Nye & Berado 1973). 더우기 老年期에는 사회관계의 축소 및 단절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되며, 김행자(1974)에 따르면 老人이 될수록 의지하거나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가 된다고 하였다.

배우자유무에 따른 老人의 疏外感에 대한 先行研究를 살펴보면, 박미령(1978)의 研究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김행자(1974), 맹희재(1985), 김미옥(1986)의 연구결과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老人이 배우자가 있는 老人보다 孤獨感 및 疏外感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同·別居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 일률적으로 행해오던 長男의 노부모 부양은 핵가족화, 도시화현상 및 전통적 효도에 대한 무관심과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로 인하여(서병숙 1986), 자녀들과 同居하면서 부양을 받고 있는 老人의 비율이 낮아지고 기혼자녀들과 別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Troll(1971)은 서구사회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研究를 검토한 결과,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老人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생활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老人들은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의식이 아직도 높으며(서병숙 1986), 노후에 기혼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때(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老人이 별거하는 老人보다 疏外程度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 기혼자녀와의 동·별거에 따른 老人의 疏外感에 대한 先行研究를 살펴보면, 김행자(1974), 박미령(1978)의 연구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老人이 별거하는 老人보다 疏外感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맹희재(1985), 김미옥(1986)의 研究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宗 教

老年期에 종교는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老人에게 있어서 종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Harris & Cole 1980). 먼저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압박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고 둘째, 생활의 의미성과 중요성을 계속 느끼고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셋째, 老年期에 경험하게 되는 각종 상실감을 받아 들이도록 도와주며 넷째, 老年期에 잠재해 있는 보상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회적 측면의 기능으로서 종교는 老人에게 모든 연령층을 끌고루 사귄수 있게 맺어주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老人의 疏外感을 감소시켜 준다. 따라서 종교는 젊은층에서 보다 노인층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Moberg(1970)는 종교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老人들이 참여하지 않는 老人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

며, 박미령(1978), 맹희재(1985), 김미옥(1986)의 연구결과에서는 종교가 있는 老人이 종교를 갖지 않은 老人에 비해 疏外程度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행자(1974)의 종교유무에 따른 소외감의 연구결과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용돈액

産業社會에서 일정한 연령에 다다른 老人은 自身の 소득이 단절된 채 자녀들의 도움이나 이전에 준비해둔 비용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老人은 이전의 시기에 비하여 빈곤을 쉽게 느끼게 되며 필요한 용돈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83). 경제적 여유가 없는 老人들은 기본적인 生活에 급급하여 적극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여행 및 여가생활의 활용, 사회활동 참여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생활이 위축됨으로서(김종숙 1987) 孤立과 疏外感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Hutchison(1975)은 그의 研究를 통해서 경제정도가 낮은 老人일수록 생활에 행복감과 만족감이 낮으며 고독감이 높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김행자(1974), 박금화(1983)의 연구결과 용돈이 적은 老人이 용돈이 많은 老人보다 疏外感程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린이회관 교양부(1973)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6) 隱退前 職業

일반적으로 老年期는 생존욕구와 더불어 안정욕구, 승인욕구, 성취욕구등이 더욱 강해진 時期이므로(김미옥 1986), 老人의 은퇴전 직업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정도등이 은퇴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생활만족 및 소외감 지각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Streib와 Schneider는 그들의 研究를 통해서 과거에 전문직을 가졌던 老人들이 그들의 개별적, 사회적 자산으로 대체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높고 육체노동의 직업을 가졌던 老人들의 생활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보고하였다(Harris & Cole 1980, 재인용). 또한 대부분의 研究에서 老人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zma & Stones 1978 : Liang 1982 : Markides &

Martin 1979 : Mcclell 1982 : Morgan 1976). 따라서 老人의 직업적 지위가 낮을수록 老人의 소외감지각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7) 教育程度

교육정도는 소득, 직업변인과 함께 社會經濟的 地位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人間의 생활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지지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Marshall & Eteng 1970), 김태현(1981), 김명자(1982)의 老人生活滿足度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도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老人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맹희재(1985), 김미옥(1986)의 老人 疏外感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老人의 고독감 및 소외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 社會活動 參與度와 老人의 疏外感

사회활동은 노후생활의 生活滿足 및 幸福感에 가장 논쟁이되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로서(Sook Ja Yoo 1987), 크게 社會遊離設과 活動設로 나뉘어진다(윤진 1985). 社會遊離設(social disengagement theory)의 대표적 학자인 Cumming & Henry(1961)은 老人은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역할, 활동, 그리고 自我投入의 양이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했으며 그리하여 老人은 모든 적극적인 활동으로 부터 심리적 에너지를 거두어 들여야 하며 이것이 "정상적이며 성공적인 노화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사회유리설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理論으로서 活動設(activity theory)을 들 수 있다. 그 대표적 학자인 Maddox(1963)는 사람은 젊은 시절동안 활동을 계속하다가 신체적, 정신적 노쇠로 인하여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로부터 유리되게 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사회제도에 의해서 老人들이 사회로부터 밀려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老人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가능한 한 사회적으로 적절한 活動을 계속함으로써 生活의 質,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그리고 士氣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활동설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는 선행연구들로는 Markides & Martin(19

79), Chapman & Beaudet(1983) 등이 있으며, 국내 연구인 김명자(1974), 박미령(1978), 맹희재(1985), 그리고 김미옥(1986)의 연구결과에서도 사회활동에 정 규적으로 참여하는 老人이 참여하지 않는 老人보다 疏外感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老人의 사회활동 참여는 노화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정적인 생활국면을 보완해 주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감을 보상해 줌으로써, 개인적인 가치감과 사회적인 능력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해 주고(Conner, Bultena & Powers 1979), 老年期에 느끼기 쉬운 孤獨感 및 疏外感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家族關係 満足度와 老人의 疏外感

노후생활에 있어 家族들과의 정서적 유대는 경제적 안정이나 건강유지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그 子女와의 關係는 어떠한 사회관계로도 대체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Streib & Beck 1980). 또한 Medley(1976)는 老人의 전체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가족 생활에 대한 만족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Quinn(1983)의 연구에 의하면 老年期 父母와 成人期 子女간의 애정, 의사소통, 부양만족, 가치관의 일치등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老人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경(1985), 한임섭(1987)의 연구에서도 老人의 家族關係 満足도가 높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또한 老人의 孤獨感 및 疏外感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5. 老化知覺程度와 老人의 疏外感

老人의 老化知覺程度는 老人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老人의 생활만족도를 예시 해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중의 하나로서(Palmore & Luikart 1972), 老人生活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老年期의 신체기능의 老化와 건강의 약화는 老人의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흥미의 범위를 협소화시키며 특히 시각, 청각능력의 老化는 他人과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들고 또한 외부적 감각 자극을 제대로 받아 들이지 못하는데 대한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한다(김미옥 1986). Edwards & Klemmack

(1973)은 특히 老人의 실제상의 건강상태보다 老人個人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지각정도가 老人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설명력 있는 변수 중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老人의 신체적 老化에 대한 知覺程度는 老人의 고독감 및 소외감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은 김미옥(1986)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신체적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疏外感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研究方法 및 節次

1. 調査對象

本 研究에서의 調査對象은 서울시에 居住하는 60세 이상의 男女老人으로 하였다.

研究의 目的上 家族이 전혀 없는 老人은 調査對象에서 제외하였으며, 社會的 階層이 고르게 표집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江北지역과 江南지역을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江北지역에서는 명륜동, 회기동, 면목동, 목동, 상계동, 공릉동을 선정하고, 江南지역에서는 여의도동, 방배동, 신반포동, 신림동, 대방동, 개봉동을 선정하여 그곳에 居住하는 男女老人을 對象으로 調査를 실시하였다.

2. 測定道具

本 研究에서의 測定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경우 기존 研究들의 一般의 方法을 따랐으며, 老人의 社會活動 參與度는 김종숙(1987)의 사회활동 참여도 측정 문항을 참조하여 作成하였다. 老人의 사회활동을 노인정 모임, 종교 모임, 교양학습 모임, 사교 모임, 취미나 운동 모임, 동네 모임의 6개 영역으로 나누어 그 참여정도를 조사하였고, 각 영역마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0점)부터 매우 자주 참여하는 경우(4점)까지의 점수를 합산하여 測定하였다. 본 조사 도구의 Test-Retest 方法에 의한 信賴係數는 .725로 나타났다.

老人의 家族關係 満足度는 최혜경(1985)이 Bengtson & Cutler(1976)의 분류차원을 中心으로 구성된 문항을 참조하여 老人의 家族關係 満足도의 측정문항들을 作成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총 7문항을 가족관계만족도 측정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본 測定道具는 5점 Likert척도로서 Varimax方法에 의한 要因分析 結果 2개 要因으로 분류되었으며 信賴度 檢사의 Cronbach's $\alpha = .873$ 으로 나타났다.

老人의 老化知覺程度는 김미옥(1986)이 Cornell Medical Index를 참조로 구성된 측정문항과 관련 연구들의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총 11문항을 作成하였으며, 본 測定道具는 5점 Likert척도로서 信賴度 檢사의 Cronbach's $\alpha = .808$ 로 나타났다.

老人의 疏外程度는 앞에서 살펴본 Melvin Seeman의 疏外觀念을 중심으로 하여 先行研究에서 使用한 疏外測定 道具(김행자 1974; 박미령 1978; 김미옥 1986)의 문항을 재구성하여 총 15문항으로, 사회적 고립감 4문항, 무의미함 3문항, 자기유리성 3문항, 무력감 3문항, 무규범성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以上の 15문항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要因分析에 의해 5개 要因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要因에 타당하지 않은 3문항을 제외하고 12문항을 老人의 疏外感 測定道具로 채택하였으며, 본 測定道具는 5점 Likert척도로서 信賴度 檢사의 Cronbach's $\alpha = .799$ 로 나타났다.

3. 資料蒐集

本 研究의 豫備調査는 測定道具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측정도구의 信賴度를 구하기 위해 1988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男女老人 20名을 對象으로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 調査用 測定道具를 완성하였다. 본 調査는 1988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300名을 대상으로 個別面接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資料를 제한 285名의 資料를 本 研究의 分析에 사용하였다.

4. 資料分析

本 研究에서의 資料分析 方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독립변인의 빈도분포,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에 따른 老人의 疏外感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Oneway-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老人의 疏外感에 미치는 각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Re-

gression)방법을 사용하였다.

IV. 研究結果 및 論議

1.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조사대상자의 一般의 特性은 다음의 표 1과 같으며, 성과 연령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의 경우 분포가 고르지 못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研究問題의 分析

본절에서는 本 研究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별로 각 독립변인에 따라 老人의 疏外感은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1) 社會·人口學的 變因과 老人의 疏外感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소외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별로 疏外感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老人의 疏外感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本 研究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도 밝혀진 것으로, 이는 성별이 다른 변수를 즉 배우자 유무나 종교유무, 교육정도등의 요인들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따라서 성별 그 자체보다는 성별과 관련된 이러한 조건들이 老人의 疏外感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배우자유무에 따른 老人의 疏外感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배우자가 없는 老人이 배우자가 있는 老人보다 소외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따라서 배우자유무는 老人의 소외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要因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가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상호보완적 상대로서 상호의지할 수 있으므로 孤獨과 疏外感을 덜 경험하게 된다는 이론적 고찰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同·別居에 따른 소외감 평균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와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同居老人이 別居老人보다 疏外感을 적게 느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서, 이는

표 1. 조사대상자의 一般의 特性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성	남성	162	56.8	한 달 용돈액	3만원 미만	77	27.0
	여성	162	43.2		3만원 ~ 7만원미만	115	40.4
연령	60세 ~ 64세	37	13.0		7만원 ~ 11만원미만	62	21.7
	65세 ~ 69세	63	22.1		11만원 ~ 15만원미만	20	7.1
	70세 ~ 74세	76	26.7		15만원 이상	11	3.9
	75세 ~ 79세	63	22.1	은퇴전 직업	무직	6	2.1
	80세이상	46	16.1		일반노무자, 농업(소작)	41	14.4
배우자 상태	동거	145	50.9		기능직종사자, 농업(자작)	100	35.1
	사별	135	47.4		판매직종사자(상인, 중개인)	38	13.3
	이혼·별거	5	1.8		일반공무원, 회사원, 군인	52	18.2
가족 형태	기혼장남과 동거	146	51.2	중등교사, 중소기업경영, 대기업간부	21	7.4	
	장남외 기혼아들과 동거	35	12.3	고급공무원, 의사, 교수, 대기업경영	27	9.5	
	기혼딸가족과 동거	9	3.2	교육 정도	무학	108	37.9
	미혼자녀들과 동거	39	13.7		서당, 국민학교 중퇴	30	10.5
	노부부 가족	36	12.6		국민학교 졸업	73	25.6
	홀로사는 노인	16	5.6		중학교 졸업	37	13.0
	기타	4	1.4		고등학교 졸업	30	10.5
종교	천주교	22	7.7	초급대 및 대학중퇴	6	2.1	
	기독교	67	23.5	대학졸업 이상	1	0.4	
	불교	86	30.2	계		285	100.0
	유교	6	2.1				
	기타종교	18	6.3				
	무교	86	30.2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老人의 疏外感

변수	구분	N	소외감 평균점수	표준편차	t 값	변수	구분	N	소외감 평균점수	표준편차	t 값
성	남성	162	24.537	8.240	n.s	용돈 정도	상	148	22.034	8.369	-5.45***
	여성	123	24.569	8.929			하	137	27.270	7.864	
배우자 유무	유	145	22.248	8.023	-4.81***	은퇴전 직업	비전문직	188	26.077	8.248	4.51***
	무	140	26.936	8.407			전문직	97	21.402	8.243	
동·별거	동거	190	24.437	8.338	n.s	교육 정도	고	145	22.855	8.643	-3.49***
	별거	95	24.779	8.939			저	140	26.307	8.071	
종교 유무	유	199	23.281	7.972	-3.72***	전체	285	24.551	8.529		
	무	86	27.488	9.084							

*P<.05 **P<.01 ***P<.001

老人의 부양기대와 子女들의 부양의식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녀들과 비록 동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 소외를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宗教有無에 따른 老人의 疏外感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老人이 종교를 갖고있는 老人에 비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높은 소외감 점수를 나타내었다(표 2). 이러한 결과는 박미령(1978), 맹희재(1985), 김미옥(198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老年期에 있어서 宗教는 老人의 심리적 적응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노후생활에 있어서 종교를 갖는 것은 老人의 疏外感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용돈액에 따른 老人의 疏外感은 용돈액이 많은 老人이 용돈액이 적은 老人에 비해 疏外程度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용돈액이 많을수록 또는 경제적으로 윤택할수록 老人의 疏外程度가 낮은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先行研究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노후생활에 경제적 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한편 老人의 은퇴전 직업에 따른 疏外程度는 비전문직에 종사했던 老人의 소외감점수가 전문직에 종사했던 老人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本 研究의 결과는 직업자체 뿐만 아니라 이 변인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老人의 疏外感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老人의 教育程度에 따른 疏外感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교육정도가 낮은 老人의 소외정도가 교육정도가 높은 老人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표 2).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것으로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적응이 容易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이 높고 공동체내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더욱 잘 유지하고 증가시킬 수 있게 되므로서 孤立과 疏外를 보다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社會活動 參與도와 老人의 疏外感

老人의 社會활동 참여도에 따른 疏外感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정도에 따라 上, 中, 下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소외감 평균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老人의 社會활동 참여도가 낮을수록 소외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표 3). 이러한 결과는 社會활동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老人이 社會활동에 참여함으로써 社會적 역할의 상실감을 보상하고 개인적인 가치감을 얻게되어 결과적으로 老年期에 경험하기 쉬운 社會적 孤立感 및 疏外感을 적게 느끼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家族關係 滿足도와 老人의 疏外感

老人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따른 疏外感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老人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上, 中, 下 세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간의 소외감 평균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노후생활에 가족관계는 어떠한 다른 사회관계와도 대체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4) 老化知覺程度와 老人의 疏外感

老人의 노화지각에 따른 疏外感의 차이를 알아본

표 3. 社會활동 참여도에 따른 老人의 疏外感

社會활동 참여도	N	소외감 평균점수	표준편차	F 값	Scheffé-Test
상	95	20.811	6.720	17.4141***	A
중	103	25.311	8.114		B
하	87	27.736	9.293		B
전 체	285	24.551	8.529		

* $P<.05$ ** $P<.01$ *** $P<.001$

표 4. 가족관계 만족도에 따른 老人의 疏外感

가족관계 만족도	N	소외감 평균점수	표준편차	F 값	Scheffé-Test
상	94	20.787	7.405	39.8409***	A
중	102	22.980	7.604		A
하	89	30.326	7.663		B
전 체	285	24.551	8.529		

*P<.05 **P<.01 ***P<.001

표 5. 노화지각 정도에 따른 老人의 疏外感

노화지각 정도	N	소외감 평균점수	표준편차	F 값	Scheffé-Test
상	95	29.053	7.427	27.4771***	A
중	96	23.875	7.419		B
하	94	20.692	8.599		C
전 체	285	24.551	8.529		

*P<.05 **P<.01 ***P<.001

표 6. 老人의 疏外感에 대한 回歸分析

변 수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표준오차	R square	F 값
가족관계 만족도	-.52732	-.40955***	.05992	.26560	71.388***
노화지각 정도	.24960	.27694***	.04291	.37222	
용돈 정도	-2.23040	-.24792***	.42406	.42645	
constant	33.64614		1.92391		

*P<.05 **P<.01 ***P<.001

결과, 노화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 의 소외감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미옥(1986)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즉 노인 자신이 노화를 많이 지각할 수록 신체적 무력감과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노화지각정도가 낮은 老人에 비해 더욱 많은 疏外感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老人의 疏外感에 대한 回歸分析

여기에서는 각 독립변인들이 老人의 疏外感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回歸分析을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노인의 疏外感을 42.65% 설명함으

로서(R²=.4264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F=71.38801, P<.001). 그리고 회귀분석에 포함 된 7개의 독립변인(배우자유무, 용돈정도, 종교유무, 은퇴전 직업, 사회활동 참여도, 가족관계 만족도, 노 화지각정도)중 疏外感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으로는 가족관계 만족도(R²= .26560)가 가장 크고 다음이 老化知覺程度(R²=.10662), 용돈정도(R²=.0542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이러한 분석결과는 老人의 疏外感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집단이 바로 老人이 속한 家族이며 따라서 노 후생활에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老人의 疏外感에 두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老人 자신의 老化知覺程度로, 이는 노화자체에서 오는 신체적 한계성에서 비롯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老化에 대한 社會에 부정적인 편견

(stereotype)에 의해서도 기인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노화과정에서 비롯되는 현상들을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수용함으로써 노화된다는 사실 자체가 노인에게 큰 疏外 要因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회귀분석 결과 老人의 疏外感에 세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 밝혀진 용돈정도는 노후생활에 경제적 빈곤이 老人의 소외감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다.

V. 結論 및 要約

本 研究는 老人의 疏外感에 영향을 미치는 關聯變因을 살피고, 각 요인들이 老人이 疏外感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알아 보고자함을 目的으로 한다. 그리하여 현대 산업 사회에서 심각한 老人問題의 하나로서 제기되고 있는 老人의 疏外感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老年期 疏外感 研究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目的에 따라 本 研究는 1988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13일간 서울시에 居住하는 男女 老人 300名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한 15부의 자료를 제외한 285부만이 최종분석에 使用되었다.

本 研究의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配偶者 有無에 따라 老人의 疏外感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1$), 현재 배우자가 없는 老人이 배우자가 있는 老人보다 소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宗教有無에 따라 老人의 疏外感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종교를 갖고 있지않는 老人이 종교를 갖고있는 老人보다 소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老人의 용돈 정도에 따라 老人의 疏外感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용돈액이 적은 노인이 용돈액이 많은 老人보다 소외정도가 높았다.

4) 隱退前 職業에 따라 老人의 疏外感은 차이가 있었으며($P < .001$), 은퇴전에 비전문직에 종사했던 老人이 전문직에 종사했던 老人보다 소외정도가 높았다.

5) 宗程度에 따라 老人의 疏外感은 차이가 있었

으며($P < .001$), 교육정도가 낮은 老人이 교육정도가 높은 老人보다 소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社會活動 參與度에 따라 老人의 疏外感은 차이가 있었으며($P < .001$), 사회활동 참여도가 낮을수록 老人의 疏外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家族關係 滿足度에 따라 老人의 疏外感은 차이가 있었으며($P < .001$),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老人의 소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老化知覺程度에 따라 老人의 疏外感은 차이가 있었으며($P < .001$), 노화지각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소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性別, 기혼자녀와의 同·別居에 따른 老人의 疏外感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回歸分析 결과 老人의 疏外感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家族關係 滿足度로 나타났고 다음은 老人知覺程度, 용돈액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의 요인들에 의한 老人의 疏外感에 대한 설명력은 4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研究 結果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老人의 疏外感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本 研究 결과 家族關係 滿足度가 老人의 疏外感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족관계가 원만하다면 老人의 疏外感은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족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며, 뿐만 아니라 원만하지 못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福祉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老人의 疏外感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老化知覺程度, 용돈정도, 사회활동 참여도등의 要因에 의한 영향은 老人自身이나 家族的 측면에서 보다는 社會的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問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老化과정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老人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본다. 또한 老人의 社會活動 參與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老人자신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회시설이나 교육시설등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그 밖에 老人의 疏外感에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은퇴전 직업, 교육정도,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등의 要因은 老人自身에 대한 尊重感과 意味感을 갖도록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김성순 : 고령인력 활력과 여가선용. 사회복지, 겨울호 1981
- 2) 김성순 : 노인복지론. 서울, 이우출판사, 1981
- 3) 김미옥 : 노인의 소외감과 신체적 노화와의 관계. 이화여대 간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6
- 4) 김종숙 : 한국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 5) 김태현 :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1
- 6) 김행자 : 서울시내 일부 노인들의 소외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4권 제2호, 1974
- 7) 맹희재 : 재가노인의 고독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5
- 8) 박금화 : 시설노인과 가정노인의 소외정도. 경북대 석사논문, 1983
- 9) 박미령 : 가족내 노인의 역할과 소외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8
- 10) 박재간 :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 이우출판사, 1979
- 11) 서병숙 :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6호, 1986
- 12) 송현애 : 부양을 중심으로한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대석사학위논문, 1986
- 13) 어린이회관 교양부 : 노인들의 용돈에 관한 조사. 1972
- 14) 오세철 : 한국인의 사회심리. 박영사, 1983
- 15) 유영주 :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0
- 16) 윤진 :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적성출판사, 1985
- 17) 장진호 : 현대사회와 인간교육. 서울, 배영사, 1980
- 18) 전병재 : 사회심리학. 서울, 경문사, 1986
- 19) 정문길 : 소외론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3
- 20) 정문숙 : 도시와 농촌연구의 정신건강에 관한 비교 연구. 중앙의학, 제38권, 제2호, 1979
- 21) 최혜경 :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5
- 2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전국노인의 생활의식 구조.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영국, 프랑스 6개국 노인의 의식구조비교조사,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p10, 1984
- 23) 한국경영자협회 : 기업 정년제의 현황. 서울, 한국경영자협회, 1979
- 24)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에 관한 실태조사. 노인문제 연구원 보고서 제5집, 1983
- 25) 한임섭 : 노인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1987
- 26) 허정 : 한국노인의 건강과 복지. 노년학의 전망 동덕여대 노인보건연구소, 1979
- 27) 황진수 : 노인복지의 불교이념적 접근. 한국노년학 6호, 1986
- 28) Chapman NJ & Beaudet M : Environmental predictor of well-being for At-Risk Older Adults in Midsized city. Journal of Gerontology 38 : p237-244, 1983
- 29) Cowgill DO : Aging and Modernization : A Revision of the Theory. Late Life, ed, JF Gubrium, Springfield, III : Charles C. Thomas, p123-146, 1989
- 30) Conner KE, Powers G & Bultena : Social Interaction and Life Satisfaction : An Empirical Assessment of Later Life Patterns. Journal of Gerontology 34 : p116-121, 1979
- 31) Cumming E & Henry WE : Growing Old. New York : Basic Books, 1961
- 32) Edwards JD & Klemmack :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 : p 497-502, 1973
- 33) Harris DK & Cole WE : Sociology of Aging. Houghton Mifflin Co. p254-255, 1980
- 34) Hutchison IW : The Significance of Marital Status for Moral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Lower-Income 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 p287-293, 1975
- 35) Kozma A & Stones MJ : Some Research Issues and Findings in the Study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 the Aged. Canadian Psychological Review* 19 : p241-245, 1978
- 36) Liang J : *Sex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6 : p100-108, 1982
- 37) Markides K & Martin M : *A Caus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4 : p86-93, 1979
- 38) Maddox, GL : *Activity and Morale : A Longitudinal Study of Selected Elderly Subjects. Social Forces* 42 : p 195-204, 1963
- 39) McClland KA : *Self-Conceptions and Life Satisfaction : Integrating Age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6 : p723-732, 1982
- 40) Medley ML :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 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 p 448-454, 1962
- 41) Melvin Seeman :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6) : p783-791, 1959
- 42) Morgan L : *A Re-examination of Widowhood and Mor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 p121-128, 1976
- 43) Palmore E & Luikart C : *Health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3 : p68-80, 1972
- 44) Quinn, WH :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MF* 45 : p68, 1983
- 45) Sook Ja Yoo : *Characteristics of and Determin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87*
- 46) Streib GF & Beck RW : *Older Families : A Decade Review. JMF* 42 : p205-224,
- 47) Troll LE : *The Family of Life : A Decade Review. JMF* 33 : p263-290, 1971
- 48) Wythers MR : *Loneliness Among Residents in Homes for Elderly. University of Nebraska, p51, 1974*